

전북도, 올 한해 농생명 혁신 통한 농민행복 실현 분주

‘농생명산업 수도 배대’ 新추진체계 확립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을 선포하고 농생명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농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을 분주히 달려왔다.

그 결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의 배대 역할을 할 신(新)추진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농산정책 평가 최우수, 시설원에 분야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를 최다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 미생물, 종자,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전북의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본격화 했다.

▲농생명산업 新추진체계 구축

전북도는 지난 2월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는 새로운 도정목표와 농정 비전을 선포하고 4개년 육성계획 마련했다.

변화된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신(新)농정 추진체계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와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를 출범했으며,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전략 모색을 위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도 지난 9월 첫발을 내딛고 대체식품, 스마트식품제조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 전북자치도 출범에 맞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추진을 위해 전북 농생명 특화지원과 전후방 신산업 발전을 견인할 전북단의 고유 특색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지구 내 특화산업 진흥특례 등을 발굴하여 끈질긴 부처실득을 통해 12개의 조항을 특별법에 담았다.

▲농생명산업 선도

눈에 타작물 재배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논콩 재배면적 1위(1만 743ha), 가루쌀 재배면적 1위(780ha)를 차지했으며, 2023년에 우수 콩 생산단지 대상과 다수확상, 우수 국산쌀 생산단지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쌀 작정생산 유도 부문에서 6,392ha를 감축하고 전국 1만9,013ha의 33.6%를 차지하는 독자적인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2023년 농식품부 ‘농산정책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설원에(스마트팜 포함)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광역은 전북도, 시군은 진안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2024년 전국 최다의 국비(102억원)를 확보해 전북도가 전국 스마트팜 명가(名家)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서는 작년 2만4,000ha에서 3만1,000ha

농어업·농어촌위 등 출범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첫발’

논콩 재배·시설원에 성과 우수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로 7,000ha 늘어나 전국 대비 22%를 차지했으며 특히, 사료 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다.

▲농생명혁신클러스터 본격 시동

기존 농생명 혁신클러스터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외연 확장을 위해,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62.5만평, 5,540억원)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농생명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 부가가치를 창출할 그린바이오펀처캠퍼스(264억원, 익산)가 12월 착공했다.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100억원, 정읍) 착공,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200억원, 정읍) 및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화센터(220억원, 순창)가 설계에 착수함으로써 먹는 미생물 뿐만 아니라 산업용 미생물 산업 분야에서도 전북이 선두에 나서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지원할 동물용의약품효능·안전성 평가센터(250억원)가 준공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시제품생산시설 또한 11월 설계에 착수

하여 동물용의약품산업의 거점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새만금 글로벌푸드허브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2023~2024, 10억원)을 12월 본격 착수해 새만금 농생명 지구 일원 글로벌 농식품허브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새만금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공모에 선정(3개 사업, 307억원)돼, 농생명용지 6공구에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00억), 농업 스타트업 단지(27억),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80억)을 착공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정착 지원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2024년 1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농생명산업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육성하기 위해 농생명 특화지구 개념인 ‘농생명산업 지구’를 구상하고 있다”며,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과 특화산업 진흥 특례는 타 지자체에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유일한 특례로서 전북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며 큰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이어 “이를 통해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스마트농업 등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R&D 기능을 집적화하고 각 분야별 규제 완화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생명기업 육성과 농가 소득을 끌어올려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설 발생시 제설 철저히”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 한파·대설 대비상황 점검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0~24일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최근 제갈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짐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 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에 나섰다.

우선 겨울철 한파에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한파쉼터인 대성경로당과 한파 저감시설인 진안 고원시장 택시승강장에 대한 한파 대책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진안군 진안읍에 위치한 대성경로당은 한파에 대비해 보일러, 히터 등 난방기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시설 면적 108.04㎡, 수용인원 60명으로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겸용으로 사용 중이다.

전북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 11월 30일까지 도내 한파쉼터(5,205개) 전체에 대해 NDMS 시스템과 주소·명칭 일치여부 및 난방기기 가동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아간 및 공휴일 등에 개방하는 한파쉼터를 지정해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설·한파 특보 발령시 도내 한파쉼터(5,205개소)를 전면 개방해 취약 지역 주민을 한파쉼터로 안내하는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여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안군 진안읍 한파저감시설(방풍시설)인 ‘진안고원시장 택시승강장’은 탄소발열의자 포함 사업비 900만원을 들여 2017년에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전북도는 방풍시설 999개, 온열의자 2,627개소 등 3,977개의 한파저감시설은 가동하고 있으며, 시설물 가동상태를 수시점검해 도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임상규 부지사는 진안읍에 위치한 대설 대비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차 등 제설장비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진안군 도로 제설대책을 청취했다.

진안군에서는 대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기 6대, 제설차 6대 등 제설장비 22대 및 자동제설장비 2대를 가동중이며,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제설반 등을 운영해 이면도로 및 보도 등 후속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점검 현장에서 “도·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대설, 한파 특보 발표시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도민 행동요령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에 대비해 대책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임상규 부지사는 진안읍에 위치한 대설 대비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차 등 제설장비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진안군 도로 제설대책을 청취했다.

진안군에서는 대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기 6대, 제설차 6대 등 제설장비 22대 및 자동제설장비 2대를 가동중이며,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제설반 등을 운영해 이면도로 및 보도 등 후속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점검 현장에서 “도·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대설, 한파 특보 발표시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도민 행동요령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에 대비해 대책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이어서 임상규 부지사는 진안읍에 위치한 대설 대비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차 등 제설장비 가동상태 등을 점검하는 등 진안군 도로 제설대책을 청취했다.

진안군에서는 대설로 인한 도로 제설작업을 위해 살포기 6대, 제설차 6대 등 제설장비 22대 및 자동제설장비 2대를 가동중이며,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제설반 등을 운영해 이면도로 및 보도 등 후속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점검 현장에서 “도·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한 대응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대책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대설, 한파 특보 발표시 외출을 삼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도민 행동요령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한파)에 대비해 대책기간을 운영 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원진무장 릴레이 의정보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정수)은 무주군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역 군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릴레이 의정보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 무주군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 윤정훈 전북도의원, 오광석 무주군 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지역위원회 주요 당직자와 당원, 사회단체협의회 회장 등 300여명이 넘는 무주군민들이 참석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회에서 달성한 입법 성과를 비롯해 예산확보 내역을 무주군민들에게 보고했고,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안 의원은 덕유산 국립공원 41만평



구역해제, 무주·설천 국도개량, 무풍·적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무주 반다비행복누리 플랫폼 조성 사업, 목재문화체험장조성 등 무주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울러 올해 예산을 확보한 태권도원 진흥 기반시설 조성 사업, 안성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에 대해서도 무주군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2023년도 모범

유공공무원에 표창 수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28일 의정실에서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수여자 30명은 모범공무원 5명,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25명이다.

위 상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의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자료,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 모범공무원에는 전라북도의회 송금단, 남원시의회 김홍철, 무주군의회 이미경, 순창군의회 김영호, 고창군의회 박인경 총 5명이 선발됐다.

이와 함께, 의정발전에 공헌한 유공 공무원으로는 전라북도의회 설주홍 등 5명, 전북도청 김정은 등 6명, 전북교육청 양지섭, 시·군의회 신금숙(전주시의회) 등 13명, 총 25명이 선발됐다. /김재훈 기자



‘바이오 산업 중심지 전북 화이팅’

28일 익산 원광보건대학교 WM관에서 열린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심포지엄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정현을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총장, 전북애환본부 윤석정 총재, 전북대 안국찬 대외·취업부총장, 원광대학병원 서일영 병원장 및 바이오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을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원식 <군산부시장> 송금현 <정읍부시장> 김병하 <진안부군수> 서재영 <무주부군수> 설상희 <임실부군수> 김철태 <고창부군수> 최영두 <부안부군수>

전북도, 시·군 부단체장 내정... 국·과장급 전보인사도 단행

부단체장에 신원식 군산부시장·송금현 정읍부시장 등 7명

국장급 승진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 특자도추진단장으로

전북도가 28일 내년 1월 2일자 시·군 부단체장,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확정·발표했다. (인사 명단 15명)

도에 따르면 이번 시·군 부단체장 전보인사에서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이 군산부시장, 송금현 국장이 정읍부시장으로 내정됐다.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이 진안부군수, 서재영 총무과장이 무주부군

수, 설상희 주택건축과장이 임실부군수, 김철태 예산과장이 고창부군수,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이 부안부군수로 부임한다.

함께 단행된 국장급 전보 인사에서는 국장급 승진 내정자인 박현규 교육협력추진단장이 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김광수 지역정책과장이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김명민 안전정책

과장은 시도지사의회의로 과편 발령 받았다.

이어, 민선8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정책기획관, 이남섭 인재개발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을 갖던 강영석 국장이 복지여성보건의국장, 최재성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김미정 군산부시장의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됐다.

이성호 정책기획관과 김영우 정읍부시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에너지를 보냅니다

모두의 소중한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한자개 성당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승연전사업의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움직이는 힘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